



11일 광주 히딩크호텔에서 열린 '은필세담'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은필세담' 회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창균·류동훈·심상돈·김병인·박형순·이상욱·강대석·김신희·박홍근·이병우씨.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야생화의 단아함
수묵화로 만나다



이윤숙 작 '영혼'

이윤숙씨 20일까지 순천문예회관

노루귀, 개여귀, 동자꽃, 머느리밥풀, 할미꽃, 구절초... 이름만 들어도 정겨운 야생화를 수묵채색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동양화가 이윤숙씨가 14~20일까지 순천문예회관에서 '야생화 그림'전을 갖는다. 지난 2005년부터 야생화를 화폭에 담고 있는 이씨는 이번 전시를 통해 여러 번 붓질을 해 꽃잎의 질감을 살린 작

품을 선보인다. 잎사귀는 진한 먹으로 치고, 꽃잎은 채색 물감으로 칠해 야생화의 단아한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호남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한 이씨는 2번의 야생화 그림전과 광주·전남문인협회전 등의 전시회를 열었으며, 전남미술대전 등에서 특선을 차지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독자 칼럼니스트' 들 책냈다

은필칼럼 수상자 18명이 쓴 140편 은필세담 발간 지역 사회 애정과 고민 글로 담아



가장 중요하게 '소통'이라고 봤을 때 신문이야말로 최상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또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입장이 아니라서 칼럼을 생산해 내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지만 칼럼을 읽은 이들에게서 '반응'이 올 때면 뿌듯함을 느낀다. 자신이 글을 쓸 차례에 전문 분야와 사회 현상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 좀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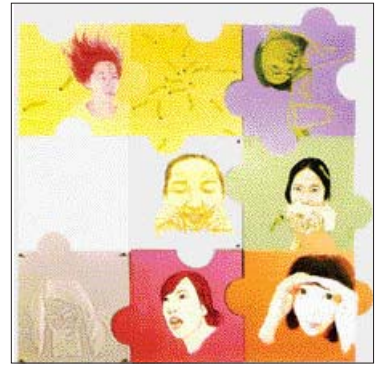
11일 광주 히딩크 호텔에서는 좀 특별한 출판 기념회가 열렸다. 광주일보에 '은필칼럼'을 고정적으로 기고하며 필력을 자랑해온 '독자'들이 자신들의 글을 모은 '은필세담(銀筆世談)' 발간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조금은 쑥스러운 듯 책을 손에 들고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는 회원들의 얼굴엔 뿌듯함이 가득했다. 독자 참여 코너는 모든 신문사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하지만 특정 독자들에게 고정 칼럼란을 제공하고, 글을 모아 책으로까지 펴낸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다. 이번에 발간된 칼럼집에는 광주일보가 운영하는 '은필상' 수상자 18명이 쓴 140여편의 글이 실려 있다. 건축가, 주부, 회사원, 시민운동가, 예술가, 공무원, 의사, 교사 등 직업들이 다양하다 보니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무척 다채롭다. 또 대부분의 필자들이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이거나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 등이 담겨 있다. 고정 칼럼을 쓰는 코너가 생긴 것도, 칼럼집을 발간한 것도 모두 '독자'들이 발벗고 나서 이루어진 결과였다. 신문사는 그들에게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등 조정한 후원자 역할을 했다. 광주일보가 '오피니언'면 기고작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필상' 제도를 만든 건 지난 2004년 12월이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은축으로 만든 만년필을 증정하고 있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필클럽'은 지난 2005년 말에 결성됐다. 몇몇 수상자들을 중심으로 모임을 만들고 고정적으로 글을 써 보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왔다. 이후 '은필클럽'이 결성됐고, 2006년 2월부터 매주 수요일 '은필칼럼'이 독자들을 찾아오고 있다. 회원들은 사회를 바라보는 자신들의 생각을 '신문'에 실을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 모든 글쓰기에 있어

는 생각에 괜히 기분이 좋았다. 요즘엔 수상자가 늘어나면서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점차 줄어들는데 '글 육식' 많은 회원들의 불만(?)이다. 회원들의 글은 무엇보다 지역 사회에 대한 고민과 애정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둘러싼 논쟁들과 5·18 문제, 지역 문화계와 경제계의 현실, 환경문제, 지방선거, 교육문제 등 다양한 주제들이 등장했다. 은필상 첫번째 수상자였던 박홍근씨는 "회원들 모두가 자신의 분야에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그 내용들을 소중한 신문 지면에 실을 수 있어 무엇보다 행복했다"고 말했다. 은필클럽 이상욱 회장은 "글을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한차례도 빠지지 않고 칼럼을 써준 회원들과 지면을 배려해준 신문사에 감사드린다"며 "지금까지 글을 모아 책까지 출간하고 하니 더욱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번 칼럼집에 글을 실은 은필클럽 회원들은 다음과 같다. 강대석(전남도 투자 담당 사무관), 김병인(서강정보대 교수), 김신희(음악칼럼니스트), 김창균(광주 북성중 교사), 류동훈(광주전남행복발전소 사무처장), 박홍근(포유건축사 대표), 박형순(전남대 약대 교수), 박상하(나주대 교수), 백강화(주부), 송민석(여천고 교장), 심상돈(동아병원장), 옥영석(농협중앙교육원 교수), 이병우(보해양조 홍보실장), 이상욱(수필가), 임명재(약사), 정병도(환경시설공단 상임 이사), 차영호(연극인), 최희동(전남대총동창회 사무총장). /김미기자 mekim@kwangju.co.kr

미대 졸업 새내기 화가들의 데뷔전

27일까지 지산갤러리 올해 광주·전남지역 미술과를 졸업하는 새내기 화가들의 단체전인 '데뷔(debut)'전이 14~27일까지 지산갤러리에서 열린다. 고차분, 방진, 유지원, 이주영, 정인선, 정자영, 주대희, 한예형, 홍혜영 등 9명의 대학 졸업생들이 참여해 도

전 정신 강한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이들은 광주시미술대전, 전남도미술대전, 무등미술대전 등에서 입상하며 이미 작품성을 인정받은 젊은 작가들이다. 고차분씨는 인생의 여정을 담은 '휴식'을, 유지원씨는 한국 사회의 성형중독을 꼬집는 조각 작품 '미인'을 전시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방진 작 '어느 날 문득'

전남대 박물관, 아프리카 문화 강좌 개설

전남대학교 박물관이 아프리카의 역사, 문화, 예술을 다룬 'Jambo! Africa' 문화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의는 19일~6월1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8월에는 아프리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현지답사도 떠난다. 강좌는 ▲인류 역사의 시작 아프리카

카(3월19일·배기동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아프리카 역사(4월2일·김광수 한국외대 아프리카학과 강사) ▲아프리카의 민족갈등과 분쟁(4월30일·황규득 한국외대 아프리카연구소 책임연구원) ▲서부아프리카 리듬 & 타악기의 이해(5월7일·곽연근 아프리카인 타악그룹 콤바야 대표

▲아프리카 미술(5월21일·정해광 갤러리 아프리카 원장) ▲아프리카에서의 NGO 활동(6월4일·임혜진 월드비전 국제개발팀) 등 12개다. 또 아프리카 문화 체험코너가 운영되고, 아프리카 풍물사진전, 영화 상영, 가면·전통악기 체험 기회도 제공된다. 수강료는 일반인 7만원, 학생 및 경로우대 대상자는 5만원. 접수는 21일까지다. 문의 062-530-359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5·18 항쟁' 역사·정치 등 다양하게 접근

5.18 그리고 역사 발간 "정조가 사랑한 1800년 이후 이 땅의 모든 국가기구는 씨알(민중)의 나라 아니라 거꾸로 씨알을 잠재적인 적으로 삼은 기구였다. 그 까닭은 두 말할 필요 없이 이땅에서 군벌했던 국가기구는 것이 우리 모두의 나라였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전남대 김상봉 교수는 5·18 역사 씨알과 국가 기구의 충돌이라는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발생한 우리 역사만의 고유한 사건으로 인식했다. 전남대 5·18 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기획한 '5·18 그리고 역사'(길과



넙)는 지금까지의 5·18에 대한 연구가 주로 사회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현대사에 큰 상처와 의미를 남긴 5·18에 대한 총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일이 미진했다는 문제 의식에서 시작됐다. 따라서 이 책은 역사학, 정치학, 사회학, 문화, 미술사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9명이 공동으로 집필해 큰 그림을 그려려 했다. /연필뉴스 문학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관주·전남작가회의(회장 박해강·이하 작가회의)는 제13기 문학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 오는 17일 개강하는 이번 아카데미는 시·소설 분야로 나눠 작품읽기, 창작방법, 올바른 문장 및 문법 이해, 각 분야 이론과 창작 실기 등으로 꾸러졌다. 강좌는 오는 10월까지 수요일(시부분)과 금요일(소설 부분) 열리며 수강료는 36만 원이다. 각 강좌별 수강인원은 10~20명이다. 접수는 오는 17일까지. 문의 062-524-7830, as7830@hanmail.net.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영화보다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런던역사거리 ☎예매1544-0600
M관 10,000 BC (12세) 최고급관
2관 추격자-디지털 (18세)
3관 벤티지포인트 (15세)/27번의결혼리허설 (15세)
4관 바보 (12세)/마이블루베리나이즈 (12세)
5관 스텝업2-더스트리트 (12세)
6관 허밍 (12세)
7관 10,000 BC (15세)
8관 TTL시네마 - 10,000BC (18세)
9관 마이뉴파트너 (15세) / 스텝업2 (12세)
광주권 무료관객 행사 종료했습니다.
* 이프유 주자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2시간 30분 초과시 정실요금 부과

—은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엔터 시네마
충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1관 마이뉴파트너 (15세)
2관 27번의 결혼리허설 (15세)
3관 바보 (12세)
4관 벤티지포인트 (15세)/어툰먼트 (15세)
5관 추격자 (18세)
6관 주노 (12세)/ 랍보4 (18세)
7관 10,000 BC (15세)
www.entercinema.co.kr
* 넓고 편안한 국내-옥외 주차장 300대 *
은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원도시영영화시영 *예매:www.joycoco.com/1588-7941
컬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해남점 (무역회관앞편)
1관 허밍 (12세)
2관 마이블루베리나이즈 (12세)/벤티지포인트 (15세)
3관 바보 (12세)/추격자 (18세)
4관 추격자 (18세)
5관 연을 쫓는 아이 (12세)
6관 마이 뉴 파트너 (15세)
7관 10,000 BC (12세)
8관 27번의결혼리허설 (15세)/집결호 (12세)
9관 스텝업2-더스트리트 (12세)
10관 10,000 BC (12세)
*오늘 최대 주자장 *예매심야 상영합니다
1588-7941
정말리 상영중 상영권리권 범위 (1시간 20분)~1년

색깔있는 영화선박 *www.cinusc.co.kr/1544-0070
씨너스 전대
북구보건소 건너편 ☎511-1000
1관 마이 블루베리 나이즈 (15세)
2관 27번의 결혼리허설 (15세)
3관 스텝업2-더스트리트 (12세)
4관 허밍 (12세)
5관 마이 뉴 파트너 (15세)/ 바보 (12세)
6관 추격자 (18세)
7관 10,000 BC (15세)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무료주차 3시간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세너스녹화 사무(모닝-캐세)
ARS 전화예매 1544-0070

즐거움이 가득 *www.mc12.co.kr/1588-9101
무등극장
충장로 1가 ☎232-9106
1관 마이뉴파트너 (15세)
2관 맨티지 포인트 (15세)
3관 10,000 BC (15세)
4관 10,000 BC (15세)
5관 추격자 (18세)
6관 바보 (12세)
7관 27번의 결혼리허설 (15세)
8관 마이베리나이즈 (12세)/집결호 (12세)
9관 스텝업2-더스트리트 (12세)
*리바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암) 3시간 무료주차
*특별선정인물 위한 전용용구 마련 *영화예매 가능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인터넷 예매 문의 1588-9101

세로운기쁨 *www.primuscinema.com/www.jelldinema.co.kr *
제일시네마
충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10,000 BC (15세)
2관 허밍 (12세)
3관 바보 (12세)/마이블루베리나이즈 (12세)
4관 추격자 (18세)
5관 스텝업2-더스트리트 (15세)
6관 마이뉴파트너 (15세)/27번의결혼리허설 (15세)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